식탁물가⬆ 전기·가스·LPG 요금⬆ 대학 등록금⬆

물가 압박에 서민경제 숨 못쉰다

국민임대 관리비 체납가구 3개월째 증가

등록금 인상+취업난=학자금연체율↑

채소값 급등으로 시작된 식탁물가 폭등에 지난 8월 전기요금, 9월 가스요금, 이달부터 LPG 가격도 오르는 등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배추·생선 등 식탁물가 폭등=광천동에 사는 주부 김은하(40)씨는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을 실감했다.

배추 김치 대신 부추 겉절이라도 만들어 볼 생각에 시장을 찾았지만 1단에 18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부추가 3000원까지 오른데다 마늘, 양파, 고추 등 요리에 필요한 양념 채소들이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고기 대신 평소 식탁에 자주 올렸던 갈치, 고등어도 선뜻 사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제는 채소반찬도 올리기 힘들게 생겼다"며 "꼭 먹어야할 것만 사는 데도 장보는 비용이 항상 예산을 초과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배추값이 천청부지로 치솟으면서 4일 현재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가 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배추값이 일주일 사이 1000원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배추뿐만 아니라 무, 호박, 양파, 상추, 파, 마늘 등 대부분의 채소값이 1년 전보다 적게는 50%이상 많게는 3배 이상 오른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 식탁에 오른다는 양배추도 1통에 8500원으로 1년 전보다 247%나 폭등했다. 갈치, 고등어 등도 어획량이 줄면서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마리당 4000~5000원대에 팔리고 있고 지난해 3마리에 990원 하던 꽁치도 올해는 2250원으로 127%나 올랐다.

이달부터 국내 LPG 수입업체인 SK가스 등이 충전소 차량용 부탄가스 공급가격을 ㎏당 1454.18원(ℓ 당 849.24원)으로 지난달보다 64.88원 올리면서 LPG연료를 사용하는 택시기사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15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김모(58·서구 화정동)씨는 "가스값이 올라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보다 가만히 기다리는 상책"이라며 "요즘은 사납금 벌기도 어려워 경비일이라도 해야하는 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관리비 체납에 학자금 등 대출금도 못 갚아=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날로 팍팍해지면서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와 금융권 대출금 연체자들도 함께 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광주지역 국민임대 5만여 가구 중 관리비 체납 가구 수는 1만988가구로 지난 6월 1만606가구, 7월 1만879가구에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광주은행의 주택담보연체율도 8월말 현재 0.46%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지난 1분기 0.29%까지 떨어졌다가 2분기 0.45%로 증가 추세에 있다.

등록금 인상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학자금대출 연체율도 크게 증가했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말 1.24%였던 학자금대출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3.53%로 급증하더니 올 3월말 3.73%, 9월말 3.80%까지 치솟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훈민정음 도자기 미국 갑니다"

한글날을 앞둔 4일 서울 청계8가 한국도자기 사옥에서 직원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훈민정음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전통시장 전기안전 '위험' 수준

광주·전남의 전통시장 전기안전이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4일 국회 지식경제위 최연희(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전기시설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결과 모두 1천654개 점포가 안전위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기준 광주·전남은 40건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전기안전이 위험한 곳은 경남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57건), 서울(53건), 경기(48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접지불량이 5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전차단기 이상(477건), 옥내배선(268건), 개폐기 차단기 불량(262건), 누전(10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3년 추가연장" 건의

지방투자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이후 임투공제)'의 폐지 방침 〈광주일보 9월29일자 8면〉과 관련, 광주상공회의소가 2013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4일 광주상의는 정부가 올해 말로 폐지키로 한 '임투공제'를 2013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임투공제'를 폐지키로 했다"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은 내년부터 임시투자 세액공제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법인세율 인하가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유보된 가운데 이 '임투공제'까지 올해 말 폐지되면 내년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기업투자와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또 "기업투자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지역 기업들도 세금부담 때문에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백화점 명당 차지한 의류브랜드 경쟁력은 F.A.S.T

〈패션·저가·신속·신뢰〉

기획에서 판매까지 공급망 관리…최신 유행따라 빠르게

최근 세계 유명 백화점 입구의 목이 좋은 이른바 '명당'을 차지한 의류 브랜드의 경쟁력은 'FAST'로 요약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낸 보고서에서 'ZARA', 'H&M', '유니클로' 등 백화점과 아웃렛에서 좋은 위치에 입점해 큰 성과를 거둔 의류회사의 비결은 패션성(Fashion), 저가격(Acceptable price), 신속성(Speed), 신뢰성(Trust) 등 4가지라고 밝혔다. 이들 의류 회사는 기획에서 판매까지 공급망 관리를 통해 최신 유행을 따라 빠르게 신상품을 내놓는다고 해서 '패스트(fast) 패션' 기업으로도 불린다.

보고서는 패션성에 대해 "전 세계 35개국에 2천여 점포가 있는 H&M은 유명디자이너, 예술가와 협업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했고 ZARA도 세계적 유행을 관찰, 소량생산해 지금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전략으로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또 ZARA는 시즌 초기에 15%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해 재고를 최소화했고 유니클로는 중국 위탁생산으로 생산원가를 낮춰 품목을 연간 500개 정도로 한정, 대량생산해 저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전국 기업형 슈퍼마켓 800곳 넘었다

광주 14곳 영업·5곳 준비중

광주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점포수가 오픈 예정인 5곳을 포함 모두 19곳이며 전국적으로는 800곳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가맹점포를 제외한 전국의 SSM은 모두 802개에 달했다.

광주는 9월말 현재 14곳이 영업중이며 5곳이 오픈을 서두르고 있다. 브랜드 별로는 롯데슈퍼가 12곳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SSM은 브랜드별로 롯데슈퍼가 237개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92개)와 GS슈퍼(172개)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탑마트 74개, 킴스마트 51개, 해태슈퍼(킴스마트에 인수) 32개, 한화슈퍼(롯데슈퍼에 인수) 21개, 이마트 15개 등의 순이었다. 그밖에 에스엠마트, 한라마트, 상록스토어 등 기타로 분류된 SSM은 모두 61개였다.

지경부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비회원사 점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혀 비회원사 점포와 주요 SSM 브랜드를 빌려 쓰는 가맹점포까지 합칠 경우 전국 SSM 점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